

한성은 선생님은,

수능수학, 수학심층면접, 수리논술을 가르칩니다.

단편적인 공식암기와 주입식 수업 방식을 지양하고,
개념의 이해와 원리 탐구를 통해
수학적 직관력과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지도의 중점을 둡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학하는 학생에게 책임 있는 지도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약력

한성은

POSTECH 수학과 졸업
(현) 5A아카데미 학원
(전) 일산 클라비스아카데미
(전) 이투스 앤써
(전) 슌마투스 강남 의치대 전문관
(전) 일산/평촌 청솔 재수종합반

연락 안내

010-3865-7677 : 한성은
가급적 문자로 해 주세요.
하루 이틀 늦더라도 답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hansungeun@gmail.com : 메일

hansungeun.com : 수학강의관련 홈페이지
강의 관련 자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을 팔고 있습니다. 사주세요.

youtube.com/user/hansungeun : 동영상 강의
평가원/수능 기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늘면 기분 좋으니 구독 해주세요.

instagram.com/hansungeun2 : 인스타
가끔 개그가 떠오르면 올립니다.

한성은 광고

알고 수업합니다.

제 수업은 수능/논술/심층면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부단히 공부합니다. 선생님들도 가르쳐요.

정직하게 수업합니다.

제 수업은 학생이 알아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됩니다.
과한 내용으로 학생을 현혹시키지 않고 책임감 있게 수업합니다.

즐겁게 수업합니다.

제 수업은 유쾌합니다.
일부 매장 제외.

좋은 자료로 수업합니다.

좋은 교재/과제물이 연간 커리큘럼에 맞추어 끊임없이 제공됩니다.
저는 양질의 문제를 풍부하게 생산하는 문제 제작자입니다.

강의 시간표

학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 고3 수능수업은 12월부터 2월까지는 과목별로,
3월부터는 주 1회 3시간 수업(과 클리닉)으로 진행됩니다.
- 주 1회 수업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 ※ 고3 논술수업은 주 1회 3시간 수업(과 클리닉)으로 진행됩니다.
- ※ 수업 외 주 1회 클리닉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연간 강의 계획(수능)

[S1] 12월 4주 ~ 2월 4주 (10주)

수업1 : [원포인트 개념주입]

수업2 : [TOOLBOX]

과제물 : [수능/평가원 기출]

[S2] 3월 1주 ~ 4월 2주 (6주)

수업1 : [Pattern Drill]

수업2 : [기출분석]

과제물 : [수능특강]

* 1학기 중간고사 휴강 (2주)

[S3] 5월 1주 ~ 6월 3주 (8주)

수업1 : [PSTP] (써밋)

수업2 : [기출분석]

과제물 : [미니모의고사]

* 1학기 기말고사 휴강 (2주)

[S4] 7월 2주 ~ 8월 5주 (8주)

수업1 : [한성은 모의고사]

수업2 : [평가원과 한성은]

과제물 : [미니모의고사/수능완성]

* 수시 원서접수 휴강 (1주)

[S5] 9월 2주 ~ 11월 1주 (8주)

수업1 : [한성은 모의고사]

수업2 : [수능예보]

과제물 : [한성은 모의고사]

* 1~2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업/과제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목록을 참고해 주세요.

연간 강의 계획(논술)

[S1] 12월 5주 ~ 6월 1주 (20주)

수업 : [퍼스펙티브] / [ErdosNumber]

과제물1 : [논술 기출]

과제물2(선택) : [VicimusGegan]

* 기간 중 1학기 중간고사 휴강 (2주) 포함

[S2] 6월 2주 ~ 10월 2주 (16주)

수업 : [NovoMethodus]

과제물1 : [논술 기출]

과제물2 : [정의/정리/증명집]

* 기간 중 1학기 기말고사 휴강 (2주) 포함

* 기간 중 수시 원서접수 휴강 (1주) 포함

[파이널] 추후 공지

수업 : [학교별 기출과 예상]

* 수능 이전 시험 : 추석 연휴 전후로 2회 수업

* 수능 주말 시험 : 10월 1회, 수능 이틀날 1회, 총 2회 수업

* 나머지 시험 : 해당 주 5회 수업

* 1~2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2]의 수업에서는 [S1]의 수업과 같은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 [ErdosNumber]와 [NovoMethodus]는 심화교재입니다.

[퍼스펙티브]가 심심한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 매주 과제물로 주어지는 1~2문항에 대한 서면첨삭을 진행합니다.

* 클리닉 시간을 이용하여 대면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성은T 가이드

1. 수업에 대한 인식

제 수업에는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비기가 있지도 않고 적중되는 예상도 하지 않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다고 무조건 성적이 오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신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수업에서 무엇을 떠드는지 보다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제 강의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것이고, 강사의 친절함이 독이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성적으로 귀찮아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도 100%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는 학생들의 질문에 문제를 던져주는 것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짜증날 수 있습니다.

3.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수업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s , 수업까지 남은 시간을 t (시간), 수업의 수강생을 M (명)이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ln s = \ln M + \frac{1}{t}$$

각각의 수업에 대한 s 의 합이 10 이상일 때는 말을 걸지 말아주세요.

4. 쓸데없이 현실적

저는 있는 그대로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위로부적격자입니다. 학생이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라 물으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라고 말합니다. 확률이니까요.
수학의 킬러문항은 높은 확률로 대부분의 학생이 도전하면 안 되는 문항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누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학생에게 수학 만점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쓸데없는 허영심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지요.

5. 농담

농담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간혹 수위가 썰 수 있습니다.

삼수각 뗐다든가, 학원에 불지르고 가라든가.

농담이니까 진짜로 하지 마세요. 귀찮아집니다.

별 생각 없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상처가 되었다면 알려주세요.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6. 수업 결손

수업에는 되도록 빠지지 말아주세요. 신경쓰여서 귀찮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배울 것이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수업이 무엇을 대단하게 바꿔주지는 않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용과 관점이 쌓여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듭니다.

저도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업 자꾸 빠지는 학생치고 제대로 공부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구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 공자

7. 상식적인 태도를 갖춰주세요.

예의를 갖춰서 예쁜 태도로 수업을 들어주세요.

이것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쁘게 하고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서로 예뻐야 공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8. 숙제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가끔 둘러보며 확인하기는 하지만 과제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잘 해 주세요. 특히 다음 수업에서 강해지는 숙제를 풀어 오지 않으면

수업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9. 질문하는 방법

질문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학이 아니더라도 입시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하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답을 해주지 않고 거꾸로 질문을 하거나 대충 하면 된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니 이해해주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귀찮아서 그럴 때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매 해 의미 없이 '질문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학생이 꼭 생기는데,

이 경우는 제가 정확히 경고를 할 것이니, 적당히 해 주세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수업 직전 갑자기 들이밀면 짜증낼 수도 있어요.

수능 수학 FAQ

1. 선택과목

학습의 난이도나 분량에서 [미적분] >> [기하] >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기존의 나형 개념이니 차치해두고 미적분과 기하를 비교했을 때, 기하의 학습 부담이 적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적분이 대다수인데다, 2022수능 기하에 불을 질러놔서 기하를 추천하기 힘듭니다만.

2. 조정점수

미적분이 기하에 비해 살짝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2022학년도 모의고사에서 만점기준으로 표준점수 1점~5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2점이면 큰 문제 없지만 4~5점이면 심각하지요. 문제는 이유를 알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잘 모르네요.

3. 수능은 어떤 시험인가?

대충 2012학년도부터 시작된, 쉬운 27문항과 킬러 3문항의 구조가 2020학년도부터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킬러가 쉬워지고 준킬러가 어려워져서 비교적 대비하기 좋은 시험이 되었습니다. 깎아주는 20문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항들이 참신하고 수준 높아 공부하면 재미있습니다.

4.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2022학년도부터 공통(수학1, 수학2) 22문항과 선택(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중 택1) 8문항으로 출제됩니다. 2022학년도의 모의고사에서 공통이 (비교적) 어렵게, 선택이 (비교적)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택과목을 소홀히 할 수도 없으니 밸런스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5. 킬러문항에 대한 대비 방법?

학생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포기하느냐, 도전하느냐가 고민되는 이유는 시험지상에서의 효율이 나쁜 문항이기 때문입니다. 킬러도 4점밖에 안 줘요. (실력이 된다면) 1학기의 공부재료가 좋습니다. 한 문제 30분을 보더라도 발상이나 논리를 스스로 꼼꼼하게 짚어보는 공부를 추천합니다.

6. 1등급 학생은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1등급 학생에게는 수능 수학의 변동성이 커서 답답합니다. 9월 1등급 중 수능 1등급이 반도 되지 않는 답없는 시험입니다. ① 실수 안하는 연습 ② 킬러문항 해결력 배양인데 둘 다 이것저것 해보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조차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선행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7. 2등급 학생은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우선 소위 준킬러라 불리는 13, 14, 15, 20, 21, 28, 29번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삼각형의 분석]이라든가, [삼차함수의 성질] 등 문제 유형별로도 대비를 하면 좋습니다. 기존의 수능보다 문항번호별 난이도 예측이 어렵기에 선구안을 길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8. 3등급 이하의 학생은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킬러문항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개나소나 킬러문항을 푼다고 덤비는 데, 1등급, 2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분명 개념이 부족한 것입니다. 개념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9. 개념 학습 방법

우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해가 없는 상태로 공식을 외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기본 예제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과하게 어렵지 않고 문제가 폭 넓게 실려 있는 시중 문제집을 하나 골라서 반복해서 뜯어먹도록 합니다. [원포인트개념주입] Astep과 B1step 정도.

10. 상위권 개념 학습

2등급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개념학습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것이며, 공부보다는 기도가 중요한 상태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곱씹어보는 것은 틀림없이 매우 좋은 공부입니다. 필수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11. 문제 풀이 스킬

스킬 중에는 개념에 가까운 필수적인 것들도 있고, 쓰잘데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내용들이 좋은 강의력(?)에 접목되면 문제가 됩니다. 스킬들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공부이지만 스킬이 뭘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증명해보고 상황, 쓰임새를 스스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12. 기출 1회독

개념이 대충 정리되었다면 기출을 볼 차례입니다. 푸는 방식은 선생님마다 제각각인데, 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을 권합니다. 상위권이면 겨울에 한 바퀴, 기출을 봐야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어려운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킬러는 10분쯤 보다 해설을 확인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냥 던지도록 합니다. (특히 2017~2019학년도의 21, 30번)

13. 기출 2회독

자세하게 보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기출은 보면 볼수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련 개념, 다양한 풀이, 발상의 원리를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친구들과 토론한다든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쓴 [기출분석+]으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이 책은 대체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14. 사설 모의고사

퀄리티가 천차만별이라 잘 골라서 풀어야 합니다. 모의고사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알고 푸는 것이 좋을 수도? 문항 예측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어떤 모의고사를 강박적으로 꼭 풀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풀지는 말도록 합시다. 1~2등급 기준으로 초반에는 1주 0.5~2회, 9평 이후에는 1주 2~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전문성/논술 공부 FAQ

1. 어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가?

- 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
- ② 학생부를 던진 학생

2. 논술은 어떤 시험인가?

대충 수학 85%, 과학 10%, 서술 능력 5%인 시험입니다.
그러니 수학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인원수 많이 줄었나요? 해야 되나요?

2021학년도와 2022, 2023학년을 비교하면 상위권 대학은 소폭 줄었고, 중위권 대학은 유지, 하위권 대학은 늘었습니다. 정시가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학생부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입시는 학생부 아니면 다 시궁창입니다.

4. 기하 나오나요?

제가 작성한 [2023 자연계 논술 출제범위와 학습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미적/기하/확통을 모두, 중위권 대학은 미적/확통까지, 하위권 대학은 수학1/수학2까지를 출제범위로 합니다.

5. 경쟁률이 장난 아닌데 붙는 붙는 것인가?

보통 원서를 쓰면 40:1, 실질경쟁률은 10:1 정도로 보면 됩니다. 암울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입시에서 정시로 성공하는 학생과 논술로 성공하는 학생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의대 제외, 의대는 수능이 개중요) 수학 실력으로 붙은 느낌이 70% 정도이고 나머지는 후루크 느낌이긴 하지만.

6. 과학 논술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일단 과학 논술이 출제되는 학교가 몇 개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두 내용이 출제되는 학교는 다시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학 논술을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 논술을 준비하면 무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학기에 투를 할 때, '논술을 할 수도 있으므로' 열심히 해두도록 합시다. 물론 논술에 기대가 큰 학생은 따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7. 교과서에서 출제되는가?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의 영향으로 고등 교과범위를 지켜주는 쪽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정신이 아닌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교과 외의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도 논술수업에서 조금씩 다루지만 요즘의 문항들과는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수능 수학과와 차이점, 논술공부가 수능 수학에 도움이 되는가?

일단 블록성이나 절대부등식처럼, 수능에서 잘 물어보지 않는 내용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항이라 하더라도 풀이과정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엄밀함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수능 수학은 잘하는 데 논술이 되지 않는 학생이 드물게 존재합니다. 논증같은 것들이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수능에 비해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기에 사고력 훈련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9. 수능 수학과와 차이점(대비법)

정상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고3학생들은 대부분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수능에 충분히 익숙해집니다. 수능을 잘 아는 선생님도, 강의도 많고, 시중 실모 중 상당수는 이미 수능의 퀄리티를 넘어서 있습니다. 논술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저는 논술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술 문제를 스스로 다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수능 수학과와 차이점(선택과목)

어쨌든 수험생활의 중심은 수능이라, 돌아버리겠습니다. 특히 기하선택자에게는 논술 수업이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논술 수업의 주 테마는 미적분이기 때문입니다. (커리의 절반정도) 겨울에 미적, 기하를 둘 다 시작해보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수능 선택이 아닌 과목을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네요. 고민입니다.

11. 답안지 서술은 어떻게 연습하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를 풀었는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답안지를 몇 번 작성하다보면 학생 스스로 감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문제는 잘 푸는데 더럽게 못 쓰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12. 학교별로 공부해야 하는가?

파이널 때나 그렇습니다. 문제들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고, 어떤 경우든지 대학별고사에 필요한 수준의 수학 실력을 갖추는 것이 공통적으로 요구됩니다. 반대로 파이널 때 학교들을 묶어서 수업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13. 의학계열 논술

의학계열의 논술 시험이 조금 더 어려운 경향은 있지만 일반학과와 논술과 대비법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높은 수능 최저와 강력한 경쟁률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의학계열만을 생각했을 때, 논술이 경쟁력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 사실 논술의 문제가 아니고 의대 들어가기 어렵지요. 열심히 합시다.

14. 면접/구술시험 대비

‘서술’이 아니라 ‘발표’라는 점 때문에 오는 차이가 있지만, 공부해야 하는 내용의 80% 정도는 논술과 공유되므로 논술과 같이 대비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논술문항보다 난이도는 살짝 높습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면접, KAIST 일반전형 등 수학 심층 면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학종 면접은 학생부 기반의 면접입니다.

수학공부/수업 FAQ

1. 수학 공부의 대원칙

수학 실력은 '스스로 생각할 때'만 늡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나 수업도 보조적인 역할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고민과 납득을 반복하는 것 외에, 어떤 지름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시험별 대비에 대하여

수능 수학과 수학논술은 서로 전혀 다른 시험이지만, 수능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수학논술을 잘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표면적인 시험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저에 깔린 수학실력입니다. 경향에 대한 공부도 좋지만 실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합시다.

3. 수업의 방향

제 수업은 공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강하게 깔립니다. 저는 제 사고나 풀이 방법을 소개하되,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풀지 않는 것도 제 수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해주는 것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4. 스킬에 대하여

저는 수업시간에 수많은 스킬들을 소개합니다. 많은 스킬들이 중요한 상황의 해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곱씹어 보고 버리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스킬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은 추천하지만, 맹목적으로 외우는 것은 반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석력/사고력이기 때문입니다.

5. 다루는 문제의 범위

어떤 문제를 꺼내느냐는 그 수업의 본질과 직결됩니다. 지엽적인 스킬을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기발한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는 지양합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수업하기 재미있기 때문에 가끔 다루기는 하지만, 좋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단계가 많거나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싫어합니다.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수업의 효율을 생각해서 피합니다. 각자 푸세요.

6. 예상 문제

수능이든 논술이든, 경향에 예민하여 곁에 맞는 문제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대부분 무의미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이나 '적중'이라는 단어가 우습게 느껴지도록 실력을 쌓아봅시다.

7. 문제 해석에 대하여

학생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답을 알고, 답을 향해 논리를 전개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쉽습니다. 쉽게 설명되더라도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겠지요. 있는 그대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이해했다.'에 만족하지 마시고, '시험 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8. 수학 문제 풀이

수학 문제는 제대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푸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 20문제’ 등으로 정하지 마세요. 고민되는 지점에서는 납득될 때까지 아낌없이 시간을 들여 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하지 않는 문제풀이야말로 시간낭비입니다.

9. 과제물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고 했지만, 제 수업의 과제물은 적지 않은 편입니다. 당연히 많은 편도 아니지만. 몰아서 하지 마시고 한 주간 꾸준히, 정성껏 다뤄주세요. 풀어 오는 것을 전제로 수업하기 때문에 과제물을 잘 다루지 않으면 수업효율이 매우 나빠집니다.

10. 과제물(논술)

수업 복습을 해 주세요. 교재의 해설지에 수업 내용이 담겨 있으니, 꼼꼼하게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주 한 두 개의 논술 문제를 꾸준히 다뤄주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수학이 좀 된다는 전제에서, 논술은 익숙해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비이기 때문입니다. 첨삭도 틈틈이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 제가 귀찮거든요.

11. 질문방법

일차원적인 질문을 매우 싫어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나 잠깐 신중하게 검토하면 발견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풀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학생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은 학생의 고민이 쌓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한 마디로 대답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더 생각 해볼게요.’를 시전 해주시면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12. 열심히

요즘에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만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 왔든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남은 시간까지입니다. 남들이 뭘 하는 지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택하는 방법이라고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13. 공부방법의 유지

공부 방법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욕이 불타다가 꺼졌다가에 따라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도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공부의 양과 방법을 정하고 꾸준히 하세요. 제 수업이나 과제물을 배부하는 방식도 이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4. 동지

저와 공부하고 성적이 오른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재주를 부려봤자 성취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과에는 운이 작용하는 문제도 있고, 믿고 따르면 된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을 기만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리닉

모든 수업은 수업 외 주1회 클리닉 시간을 가집니다.
테스트와 질의 응답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메타인지학습 :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을 메타인지라 합니다.
이 메타인지능력은 학업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자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강의를 듣기만 하는 것은 학습의 효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정리하기, 설명하기 등의 능동적인 공부가 성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클리닉 시간은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공부를 확인하고, 정리하고, 계획(목표)을 정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테스트 :

3종류의 테스트가 운영됩니다. 결과는 모두 부모님에게 전달됩니다.

클리닉 테스트 : 매주 (10~15문항)

- 수업복습 및 필수예제 위주
- 매주 클리닉시간에 시행되며, 시행 직후 선생님과 오답정리를 합니다.

모의고사 : 격주 시행

- 내신 또는 수능 모의고사

복습 테스트 : 격주 시행

- 클리닉 테스트/모의고사에서만 문항을 발췌합니다. (간혹 예고된 추가범위)
- 범위를 한정된 것은 철저한 복습을 의도한 것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패셔도 좋습니다.

영상강의 수강 :

수강할만한 영상들과 그에 따른 피드백 학습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클리닉 선생님에게 문의하세요.

첨삭(논술) :

매주 주어진 과제물에 대하여 저 또는 클리닉 선생님의 우수답안과
여러분이 제출한 답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상담요청과 질문 :

카톡 등을 이용한 질문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질문은 예쁘게 잘 해 주세요.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2023학년도 한성은단과합격자

의대 9명
치의대/약대/한의대/수의대 6명
서울대 4명
카이스트/포스텍 3명
경찰대/육군사관학교 2명
연세대/고려대 14명
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 21명
중앙대/경희대/서울시립대/이화여대 33명
건국대/동국대/홍익대 24명

2022학년도 한성은단과 합격자

- 의대 8명
- 치의대/약대/한의대/수의대 12명
- 서울대 3명
- 육군사관학교 2명, 공군사관학교 1명
- 연세대/고려대 19명
- 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 19명
- 중앙대/경희대/서울시립대/이화여대 27명
- 건국대/동국대/홍익대 8명

 수학학원 031.814.5151

[명단은 hansungeun.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